

미륵사지의 달빛 향연

미륵사지 야간경관 조성 기념 내달 1일 야간 열린음악회
룩스필하모니오케스트라 등 클래식 공연 등 준비돼

세계유산 미륵사지에서 야간경관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음악회가 개최된다. 익산시는 다음달 1일 저녁 7시부터 '미륵사지 달빛 향연'을 주제로 한 야간 열린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문화재청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으로 지난 5월부터 매주 토, 일요일 국립익산박물관 야외공연장에서 진행 중인 '박물관을 품은 미륵사지' 프로그램을 야간에 개최하는 것으로 일시 변경했다. 최근 조성된 미륵사지 야간경관을 통해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염원하기 위해 열린음악회 형태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문화재청, 전북도, 익산시가 주최하고 룩스필하모니오케스트라가 주관하며 저녁 7시부터 미륵사지 내 특설무대에서 클래식, 국악, 대중가수를 초청해 수준 높은 음악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룩스필하모니오케스트라(대표 조상익)와 바리톤 김건화, 테너 최재영 등이 펼치는 클래식 공연과 박물관의 가야금 공연이 이어지며 가슴앓이, 갯바위를 부른 가수 양하영, 해후, 동행을 부른 가수 최성수 등 대중가요도 함께 준비되어

있다. 특히 최근 조성된 미륵사지의 야간경관조명과 어우러진 음악공연은 장기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공연을 진행하는 동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객석 간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명부 작성,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정현을 시장은 "미륵사지에서 진행되는 고품격 음악공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참고 견뎌주신 시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계유산을 활용한 문화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 당일에는 한해 국립익산박물관의 관람 시간이 저녁 9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대한독립만세! Liberta'

김제문화예술회관서 내달 14일
광복 75주년 기념 음악회 열려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는 8월 14일 오후 7시 30분 광복 75주년 기념 공연으로 음악으로 기억하는 자유 "대한독립만세! Liberta(자유)"가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아리랑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소프라노 김은혜, 바리톤 손승범 등의 협연으로 우리 민족이 기쁠 때나 슬플 때,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때 부르던 아리랑 서곡을 시작으로 영화 밀정의 배경음악인 드보르작의 '슬라브 춤곡' 그리고 '바람이 머무는 날', '아 목동아',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 등 다양한 곡들을 연주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시민들을 위해 공연장 거리두기 객석제, 방역 소독, 발열 체크, 자가 문진표 작성 등 생활 속 거리두기 공연장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할 예정이며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람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된다. 공연은 전체관람가이며 무료이다. 관람권 예매는 8월 4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배부한다. /김제=곽도태기자

'굽이치는 세계'

순창군립도서관서 내달 3일
기획전시... 10편 작품 선봬

순창군립도서관에서 '굽이치는 세계' 전시회가 오는 8월 3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세계적 명성의 미디어아트 작가 육근병 'Nothing'이 포함된 보기 드문 기획 전시회다.



추광신작 '금붕어'



박남재작 '격포의 바다'

최초로 세계 예술무대의 중심인 '카셀 다큐멘타'에 초대되어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봉분(무덤) 속에서 박을 향해 감박이는 모니터 영상 '눈' (目)이 있는 설치작업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며 영상, 소리, 설치 등 미디어 아트와 사진과 회화 드로잉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업을 통해 자연과 사람, 역사, 우주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것들을 '응시' 한다. 또한 전북 구상화단을 주도해 온 원로작가 박남재 화백의 '격포의 파도'는 바위에 부딪치는 파도를 '대담한 화필과 과감한 생략'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격포 바다의 힘찬 생명력과

자연의 장엄함을 특유의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순창 출신의 박남재 화백은 대한민국 예술원상을 받았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심사위원장을 역임했다. 그 밖에도 추광신, 강영봉, 강성은 등 작가의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군립도서관은 이번 전시회가 예술에 대한 경탄과 질문, 그리고 기쁨을 느끼며 순창군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기회를 확장해 생활의 활력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650-5678)로 문의하거나 순창군립도서관 홈페이지(lib.sunchang.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학' 우수 학위논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도내 인문·문화 등에 대한 주제로
전북연구원,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 전북학연구센터가 오는 8월 1일부터 17일까지 전북학 관련 '2020년도 우수 학위논문 지원 사업'의 지원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전북도 관련 주제로 연구하는 신진연구자에게 시상 및 상금을 지급, 전북학 연구의 활성화는 물론 후속연구자에 대한 격려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개별 신진연구자에 대한 학문적, 경제적 지원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모집 대상은 전북도 및 관내 시군의 인문, 문화, 사회, 경제, 자연 등에 대한 주제로 2019년 1월~2020년 8월 내에 석사·박사 학위논문을 집필한 대학원 졸업자(혹은 졸업예정자)이다. 응모자는 기존의 학위논문에 대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전공자들이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자는 이후 자신의 원고를 전북학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전북학연구'의 체계

에 맞추어 투고한다. 선정대상자는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가 발행하는 상장과 함께 석사는 인당 2백만원, 박사는 인당 3백만원을 지급받는다. 선정하는 인원은 석사 5명, 박사 5명으로 총 10명이다. 선정자는 오는 9월 말에 자신의 연구에 대한 시상과 함께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는 공식 행사에 참여한다. 공식행사를 통해 선발된 신진연구자 개개인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민의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이번 2020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진행,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전북학연구센터의 중점사업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신진연구자에 대한 발굴과 지원은 물론 관련 전북도연구를 활성화하고 학문 후속세대를 안정적으로 양성하고자 한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응모 및 문의는 담당자 유선번호(063-280-7167) 혹은 이메일(skn84@jbnk.or.kr)로 연락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동화적 삶의 인문학'... 전주대-최명희문학관, 인문학 교양강좌 성료

강좌별로 '나에게 쓰는 편지'
'한지 활용 꽃심 만들기' 등 체험도

전주대 인문학플러스(HK+)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와 최명희문학관은 지난 7월 21~22일과 28~29일 총 4회에 걸쳐 인문학 바로 알기 교양 강좌 '동화적 삶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소규모 24명만 모집해 실시된 이번 프로그램은 동화작가와 체험강사를 초청, 작가의 작품을 통해 바라는 인문학과 삶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다. 또한, 각 강좌별로 '꽃감피 만들기', '1년 후 나에게 쓰는 편지', '길광편우 만들기', '한지를 활용한 전주 꽃심 만들기' 등의 연계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해 수강생들의 참여도 이끌어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작가로부터 직접 듣는 인문학과 글쓰기 강의도 뜻깊었고, 강좌와 연계된 체험이 매회 구성돼 만족스러웠다"며 "특히 전주시민으로서 전주정신의 의미를 알게 되고 '꽃심'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전주대 인문학플러스(HK+)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와 최명희문학관은 지난 7월 21~22일과 28~29일 총 4회에 걸쳐 인문학 바로 알기 교양 강좌 '동화적 삶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명희문학관 최기우 관장은 "전주대학교의 배려와 준비로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지역 내 문인(文人), 인문학 전문가와 꾸준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전주대와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백진우 HK+지역인문학센터장은 "지원해 준 최명희문학관과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시민들

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인문학센터로서 도민들이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문학을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는 다양한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강좌 및 프로그램에 관한 문의는 063)220-3201~3, 3207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여행비용 반값, 재미는 두 배... 대세는 '촌캉스'

전북도, 익산 미륵사지 등 도내 농촌여행 추천코스 소개

전북도는 여름휴가 성수기에 맞춰 촌(村) 캉스를 준비하는 일몰쪽을 위해 최대 50% 할인혜택 정보와 아이와 함께 반드시 가봐야 할 농촌여행 추천코스 2탄을 선보였다. 도는 농촌여행 추천코스 2탄에서는 굽이진 산과 계곡에 이야기로 접해지는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 여행코스를 소개했다. 아이와 함께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농촌탐방 추천지로는 신라 선화공주와 백제 서동이의 사랑이야기를 천년동안 품고있는 익산 미륵사지가 있다. 이어 전주한옥마을까지 자전거 투어와 쿠키 만들기 체험이 가능한 전주 원색명화마을, 한국전쟁으로 피폐해진 농민에게 나눔과 치스를 가르치고 농촌계몽에 힘썼던 지정환 신부의 숭고한 정신을 알아가는 일실 치즈마을도 추천한다. 또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촬영지이며 연중 인생적이 가능한 남원 서도역과 돈되는 목공예체험을 할 수 있는 남원 노봉촌 불문학마을, '미스트롯' 송가인의 애창곡 '춘향전의 사랑'이 여기서 불러야 제맛! 남원 광한루, 동편재 판소리 한자리에 돼지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는 남원 동편재

마을 등이 추천코스다. 전북도 농촌으로 여행을 계획하는 일몰쪽이라면 비용은 반이 되고, 재미는 배가 되는 농촌여행 할인혜택도 소개했다. 도에서 추진하는 농촌공감여행 지원사업은 우수 농촌체험휴양마을(50개소)에 1주일 전에 방문 예약을 하고 숙박, 식사, 체험을 즐겼다면 최대 5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처는 전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 농촌관광처(063-717-0150)로 하면 된다. 또한 청소년동반 가족여행 지원사업은 초·중·고 청소년과 함께 전북을 방문한 타지역 가족에게 1인당 2만원의 숙박비를 지원한다. 전북 농촌체험휴양마을(139개소), 농어촌민박(1,225개소)도 할인대상 시설이며 전북도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수화여행지원팀(063-232-0226)으로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의 농촌관광 할인지원사업은 농촌마을에서 숙박·식사·체험·농산물 구입 등을 농협·신한·현대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카드대금에서 최대 3만원 차감할인 받는 타 할인혜택과 중복할인이 가능하다. /유호상 기자